

롯데백화점 광주점, 여성 우울증 예방 SNS 이벤트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에 마련된 '리조이스 캠페인' 행사장.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여성 우울증 예방을 위한 SNS 이벤트를 연다.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6일까지 12일 동안 9층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을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 1건 당 1000원을 기부할 수 있는 '리조이스 캠페인'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리조이스'는 롯데백화점이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여성 우울증 인식 개선 캠페인이다. 행사 기간 동안 광주점 등 전국 7개 롯데백화점에 마련된 '마음 교육 사진관'을 찾으면 사진을 찍고 무료 출력할 수 있다. 주어진 문구(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사진을 올리면 건당 1000원의 기부금이 국제구호 NGO나 리조이스 심리 상담 사업에 기부된다. 오는 30일까지 롯데백화점 앱을 통해 신청하면 '리조이스 종이방향제'도 받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4월30일까지 매일 1000원을 기부할 수 있는 '하루 한번 마음보내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황병석 롯데백화점 사업부장은 "롯데백화점이 2020년 새해를 맞아 매달 테마를 '사회공헌(CSR)'으로 정했다"며 "고객들에게 우울증 인식 개선은 물론 리조이스 캠페인의 참된 의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북구 아동시설에 위문품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학장 도재운)는 최근 광주시 북구 아동·청소년 생활 시설인 '참빛 지역아동 그룹홈'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도재운 학장은 "그룹홈이라는 사회복지 시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기회로 광주캠퍼스에서 교직원들의 진심을 모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복지시설 5곳에 500만원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중소기업인들은 설 명절을 맞아 최근 광주시 서구 광천지역아동센터에서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 복지시설 5곳에 5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한센인과 울고 웃고 12년 행복했습니다”

퇴임한 '소록도 지킴이' 박형철 소록도병원장

근무 자청해 역대 최장 근무... 주거 개선·학습공간 조성 등 100년 사업 성공 추진...“역사 보존해 교육현장 활용해야”

'소록도 지킴이' 박형철(59) 소록도병원장이 지난해 말 조용히 명예퇴직했다. 김 원장은 2007년 부임 이래 무려 12년 2개월 동안 한센인과 고락을 함께했다. 소록도 1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오래 근무한 원장이다. 김 원장은 광주시 동구보건소장을 퇴직한 뒤 자청해서 소록도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소록도병원은 국립병원이지만 사실상 근무를 자청하는 의사는 드물다. 그는 재임기간 소록도 100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한센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환자들과 동고동락하며 한센인들의 행복한 삶을 꿈꿨다. 한센인과 비한센인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 소설가 이정준의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의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박 원장은 2009년부터 소록도 내 노후 주거 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다. 1930년대 지어진 낡은 목조건물 300여동을 8년여에 걸쳐 90% 가까이 보수했다. 1개동을 수리하는데 100만여원이 드는 만큼 병원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박 원장은 국회를 수차례 직접 찾아가며 예산을 확보했다. 박 원장은 군의 협조를 받아 한센인을 위한 학습 공간을 조성하기도 했다. 노래 교실, 댄스교실, 컴퓨터 프로그램 등 동호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 소록도병원 개업 100주년을 맞은 2016년, 소록도 역사를 오롯이 보존하는 한센병 박물관을 개관하기도 했다. 박 원장은 지난 2016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소록도가 한센인의 힐링은 물론 외지인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동행(同行)의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 또 많은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섬이자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장소'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록도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선 외지인들의 잘못된 상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마다 잘못된 상식이 세간에 퍼지면서 차별과 인권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때 의료진까지 감염자 취급을 하며 따돌림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원장은 평소 입버릇처럼 소망을 말했다고 한다. "다시는 질병으로 인한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인권향상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한센의 역사가 서린 소록도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기억의 공간이자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박 원장의 퇴임식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렸다. 소록도 병원 관계자는 "늘 환자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셨다. 환자 의견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직원 입장에서 힘들기도 했다"며 "퇴임식에서도 '내가 간 후에야 환자들을 위해 맡겨진 일을 잘 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문학평론가 된 약사선생님

조선대 국문과 대학원 김민교 씨,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

약사 출신 박사과정생이 중앙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돼 화제다. 주인공은 조선대 국문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김민교(38)씨. 김 씨는 202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평론에 위안부 피해자를 주제로 분석한 '남성 성장소설을 넘어서-위안부' 피해자를 재현한다는 것이 당선됐다. 투고 당시 김 씨는 '이소'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대학원 진학하기 전 10여 년 정도 약사를 했습니다. 근대 약사를 하는 중에도 문과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사회학이나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광주에서 태어난 김 씨는 초등학교 이후로는 서울에서 자랐다.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였던 탓에 근무지를 따라 서울에서 생

활했다. 숙명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국립암센터에서 약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암병동에서 일하면서 안타까운 비극에 무너지는 삶이 힘들었고,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에 정착하게 된 것은 결혼을 하면서였다. 광주의 병원에서 약사로 일하다가 국문과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 공부를 했다. 김 씨는 "이야기를 표현하거나 시를 형상화하는 것보다 문학 작품 자체에 관심이 많다"며 "텍스트 이면에 내재해 있는 정신적 무의식이라든, 감각이라든 다양한 요인에 흥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번 당선작은 박사논문 준비하면서 쓴 글이다. 박사과정을 졸업한 이후에도



위안부 피해자 부분을 전작할 생각이다. "위안부 피해자는 여러 문제가 교차되는 부분이지요. 여성, 제3세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층위가 맞물려 있죠. 다시 말해 여성문제 뿐 아니라 국가 폭력, 식민지 부분 등이 중첩되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다면적, 다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위안부 피해자는 성적인 부분과 관련돼 있어 의미화하기 굉장히 어렵다"면서 "이 문제가 많이 재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당선작은 위안부 피해자가 지닌 문 제적인 지점, 다시 말해 타인의 고통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서사의 욕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물론 여기서 한 발 나아가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글이 지향하는 부분이다. 김 씨는 전통적인 문학 전공자와 달리 이과 출신 평론가라 기존의 '문법'과는 다른 글을 쓸 것 같다. 특히 "이과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작품을 볼 때 이과적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다. "작품을 볼 때 인간적, 서사적 관점으로 보기보다 공간을 분할해서 본다는지 하는 특성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시각으로 문학을 보는 것과는 다소 다른 방법이겠죠." 앞으로 김 씨는 '위안부 피해자' 주제를 토대로 평론도 쓰고 더 깊은 공부를 할 계획이다. 김 씨를 통해 정통의 문학 문법과 결이 다른 사유와 시각이 투영된 의미 있는 글이 많이 생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장에 임차식 전 국립전파원장

'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 사업을 이끌 어갈 사업단장에 임차식(64) 전 국립전파 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28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 산업융합 사업단 단장에 임 전 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 선임 단장은 임기 동안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총괄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독립적 부설기구인 인공지능 사업단은 지난해 말 설립과 함께 단장 선임 추진했다. 국가사업인 '인공지능 사업'은 총 사업

비 4061억원을 들여 첨단 3지구 내 창업팀 등 연구단지를 조성한다. 임 단장은 조지아공과대, 연세대 대학원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81년 17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을 거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07년에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북 출신 원로 소설가 최창학 씨 별세

서울에대 문예창작과 교수를 지낸 소설가 최창학이 27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도서출판 상상은 28일 2017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한 고인이 전날 밤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고인은 1941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968년 계간 '창작과비평'에 '포스트모더니즘 계열 중편 '창'(槍)을 발표하며 등단한 이래 10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 대표작으로는 소설집 '물 수 없었던 물음들', '바다 위를 나는 목', 장편소설 '긴 꿈속의 불', '아우슈비츠', 선집 '최후

의 만찬', '창' 등이 있다. 고인은 1978년부터 30여년간 서울예술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임하며 소설가 신경숙, 하성란, 강영숙, 김기우, 이나미, 신승철, 조정관, 천운영, 윤성희, 변태영 등을 가르쳤다. 유작은 최근 상상에서 출간한 '케모포트'.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항암 주사를 맞아 가며 절필 22년 만에 쓴 장편소설이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문승창(사업)·송건희씨 장남 정영근, 이종태(전 광주일보 기자)·김경희씨 장녀 아령양 2월 8일(토) 낮 12시 충남 천안시 아산역사 내 CA웨딩컨벤션 2층 투체홀.
▲안영복·유명희씨 차남 대명(경찰관)군, 윤희현(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한광숙씨 장녀 희다(경찰관)양=2월 8일(토) 오전11시 상무지구 홀리데이인광주호텔 2층라비엔호텔.
▲하동정씨 장영공파종회 신년하례 및 성묘=30일(목) 오전 10시 30분 영암군 신북면 하정길49 010-8600-5366.

알림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는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3월(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369-4009.

- ▲지적장애인 성인 주간보호 서비스=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재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더'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호사량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

- 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심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3D프린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3D프린팅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